이란 국방부도 공격 표적…이스라엘 주택가 인명피해 속출

이란 핵개발 관련 기관도 공격받아…이란 최대 가스전 일부 생산 중단

이란 미사일에 이스라엘 주거용 건물 타격…사망자 8명·부상자 200명

이스라엘의 대대적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국방부와 국방연구소 등 핵심 시설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사상자가 속출했다.

15일 (현지시간) AP 통신,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른 오전 이란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국방부 건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주변의 핵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건물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이 기관이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란 타스님 통신도 국방부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다만,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는 행정 건물 중 한 곳만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습을 받은 시설에서의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날 오후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로 공습 범위를 확대했다. 이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한 이란 최대 가스시설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은 생산이 일부 중단됐다고 이란 언론은 전했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주변에는 이란의 방공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곳곳에 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했다.

이날 이른 오전 이란제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상공을 진입했고, 지상에서는 요격용 로켓이 발사되면서 섬광과 폭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하이파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일제히 공습경보가 울렸고, 대피 명령도 이어졌다.

이스라엘 현지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텔아비브 남쪽 바트 얌 지역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잔해에 깔려 실종됐다.

사망자 중에는 8세 여자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북부 탐라 지역의 주택가 건물에서도 이란의 공격으로 13세 소녀를 포함해 가족 관계인 여성 4명이 한꺼번에 숨졌다.

15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 있는 석유 창고에서 화재와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은 밤사이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약 2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용 연료 생산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란의 공격은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연합뉴스

일본은행, 국채 매입 감액 "내년 4월부터 현행 절반"

금리는 '0.5% 정도' 동결할 듯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감액 규모를 내년 4월부터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16-17일 개최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지난해 8월 시작한 국채 매입 감액에 관해 논의한다.

일본은행은 내년 3월까지 국채 매입액을 분기마다 4천억엔(약 3조8천억원)씩 줄이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감액 폭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분기당 2천억엔(약 1조9천억원)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채 5조7천억엔(약 54조1천억원)어치를 매입했던 일본은행의 내년 1월 국채 매입액은 2조9천억엔(약 27조5천억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일본은행이 내년 4월 이후 국채 매입 감액 규모를 분기당 2천억엔으로 축소하면 2027년 1월 국채 매입액은 2조1천억엔(약 2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감액 속도 조절과 관련해 "일본은행이 보유 국채를 줄여 금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을 촉진하는 한편, 금리 급등에 따른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한다"고 해설했다.

일본은행은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5% 정도'로 동결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 FATF '고위험국' 재지정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블랙 리스트에 재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13일 (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에 북한, 이란, 미얀마를 재지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에 올랐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5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연합뉴스

관세전쟁·중동갈등 속 캐나다서 G7 정상회의 개막

李대통령 등 7개국 정상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주요 7개국(G7)과 그외 7개 초청국 정상들이 캐나다에 모인다.

14일 (현지시간)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G7 및 초청국 정상들은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 모여 글로벌 경제 및 안보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을 말한다.

비(非) G7 국가 중에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 초청됐다.

G7 정상 간 공식일정은 16일 환영 행사로 시작되며, 초청국 정상을 포함한 공식 일정은 마지막 날인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중점 의제는 ▲공동체와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의 파트너십 확보 등이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중동 관련 안보 문제나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희토류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 성사 여부 및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한 협의가 주목된다.

또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과 각국 간 관세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많은 정상의 관심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간 여러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등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독일, 2차대전 패전 후 80년만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15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연다.

지난해 독일 의회는 매년 6월15일에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격려하는 날을 제정해 공개 행사를 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는 이날 전·현직 독일군 장병들을 위한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마련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베를린 연방의사당 앞에 지어진 '참전용사의 마을' 등을 방문하고 전·현직 군 장병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치하할 예정이다.

미카엘 크라우스 보훈처장(중령)은 FT에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행사에 "탱크도 전투기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번 행사가 (독일군에) 정말 좋은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